

의료기관				번호: IV - A -1	
제 목	국문	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의 타당도 연구			
	영문	A study on validity of evaluation criteria in tertiary hospitals			
저 자 및 소 속	국문	임 준, 박수경, 이신호 한국보건산업진흥원			
	영문	Jun Yim, Soo-kyung Park, Shin-ho Le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			
분 야	보건관리	발 표 자	임준	발표형식	구 연
	의료자원-의료기 관		일반회원		
진행상황	연구완료				
<p>1. 연구 목적</p> <p>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 적합한 기능과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이 개발, 시행되고 있으나, 종합전문요양기관 평가기준 중 하나인 환자구성상태 지표가 의료기관의 환자구성(case-mix)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그 이유 중 하나가 질병군 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이에 현행 질병군 분류방법의 타당도를 평가하였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현행 질병군 분류방법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학회에서 작성한 질병군 분류방법을 황금기준(Gold standard)으로 정하였고, 민감도와 특이도를 평가하였다. 또한 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질병군 분류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를 함께 평가하였다. 평가를 위해 2001년 2-7월까지의 EDI 전산자료를 분석하였다.</p> <p>3. 연구 결과</p> <p>현행 질병군 분류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각각 100%, 98.4%인 것으로 나타났다.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질병군 분류방법의 민감도와 특이도는 모두 100%인 것으로 나타났다. 분석 결과 현행 질병군 분류방법, 학회의 질병군 분류방법,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의견간에 민감도, 특이도 등에 차이가 없고, 현행 분류방법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인정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.</p> <p>4. 고찰</p> <p>본 연구를 통해 현행 질병군 분류방법은 의료기관의 환자구성을 설명하는 데에 타당한 방법인 것으로 나왔다. 그렇지만 내용타당도에 해당할 수 있는 질병군 분류에 사용된 EDI 자료의 타당도 평가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존재한다. 또한 질병군 분류방법이 타당하다고 해서 환자구성상태 지표의 설정 자체가 적절한 것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.</p>					